

남원 춘향국악대전 13일 팡파르

대한민국 명인 명창의 등용문인 제43회 춘향국악대전이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열린다.

제86회 춘향제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춘향국악대전은 올해로 43회째의 전통을 이어오면서 수많은 명인 명창을 배출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악인의 향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춘향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춘향국악대전위원회, (재)국악방송이 주관하는 제43회 춘향국악대전은 사랑의 광장 무대와 광한루원 특설무대, 합파우 소리체험관에서 예선과 본선이 각각 치러지게 된다.

경연 종목은 판소리, 민요, 무용, 관악, 관소리·민요·무용·관악 등 6개 부문서 기량 겨뤄

현악·병창, 신인부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그동안 인고의 노력을 이룬 참가자들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 등단하기 위하여 대회에 참여해 자신들의 기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2,000만원을 상금이 주어지며, 최우수상에는 전북도지사상과 상금 300만원, 우수상은 남원시장상과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일반부 부문 민요부 대상에는 국무총리상과 상금 300만원, 무용과 기악 관악, 기악 현악·병창부 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씩이 각각 돌아간다.

박형석 대회 집행위원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발휘해 국악인들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통문화와 민족예술인 국악의 위상을 한껏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연 중간 중간에는 여성국악 공연

과 춘향국악대전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들의 기악 합주 및 무용, 가야금병창, 민요, 단막극 공연 등이 펼쳐져 신명나는 전통소리를 관람할 수 있다.

14, 15일 저녁 7시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무대, 오작교 수중무대에서는 여성국악 공연이 펼쳐지며, 14일 광한루 누각에서는 남해성 명창(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5호 수궁가 보유자)과 제자들의 공연인 '춘향의 수궁가 사랑'을 찬조무대로 올린다.

또한 14일 저녁 7시 완월정 특설무대에서는 춘향국악대전에서 배출한 명인 명창들의 명인 명창 국악대향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예술가·학자 10인 책과 삶 '탐독' 출간

이수웅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가 예술가와 학자 10인의 책과 삶 이야기를 담은 '탐독'을 펴냈다.

김영하, 조너선 프랜즌, 정유정, 김중혁, 움베르토 에코, 김대우, 은희경, 송호근, 안은미, 문성희. 책의 제목처럼 책을 열중해서 읽고, 유달리 즐겨 읽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삶과 작가가 읽어 온 책은 분리될 수 없다. 서머셋 모어의 '달과 6센트'에 담긴 탈주의 서사는 ROTC 장교의 길과 교수직을 포기한 김영하 자신의 인생과 겹쳐진다. "무엇이 한 인간을 다른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유정이 글을 쓰는 이유는 켄 키지의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에서 추장 브롬슨이 맥머피를 구원한 순간처럼 사건과 의미가 함께 오는 순간을 만들고자 함에 있다. 요리 연구가 문성희는 현실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의 삶을 실천했다.

책에 소개된 '내 인생의 책' 열 권은 무엇보다 인간이 품은 불안과 욕망의 근원을 밝히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책에서 멀어지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한 현실에 대한 비판도 빼놓을 수 없다.

조너선 프랜즌은 스마트폰과 페이스북은 인간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다며 '항우울제' 따위가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 '멍청한 생각'이라고 단언한다. 1만 4500원, 220쪽, 민음사. /박용주 기자

운봉 가야 유물 만나다

남원 아영면 월산리 출토 35점 특별전

향토박물관에서는 4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운봉 가야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월산리 출토 유물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재)전북문화재연구원 조사 발굴하고, 2012년 국립전주박물관에 국가 귀속되어 보관 중인 월산리 출토 발굴 유물을 중심으로 대표적 유물 35여점을 비롯하여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대가야박물관, 보석박물관 등 5개 기관에서 출품된 여러 유물 등 총52점이 전시된다.

월산리 고분군은 2010년 10월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가야계 투구와 비늘갑옷, 왕이나 상류층과 관련된 자부술, 백제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중국계 자기인 천계호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백제대간은 삼국 시대에 백제와 가야 및 신라의 접경 지대였고 지금은 영호남을 가르는 지리적 경계선으로, 운봉고원은 백제대간의 동쪽 고원지대로서 백제와 가야 및 신라가 교통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백제의 고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돌덧널무덤에서 가야계 유물들이 철제무기, 갑옷, 투구 그리고 토기들이 출토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월산리 출토 유물의 성격을 조명하기 위해 국립대구박물관 및 대가야박물관으로부터 대가야 계통인 고흥 지산동 고분군 출토 토제발형기대 및 원통형그릇받침 등을 대어 전시함은 물론 국립진주박물관으로부터는 바리모양그릇받침 등 소가야 계통의 유물들도 출품되어 전시됨으로써 5세기경 운봉가

남원 향토박물관에서는 6월 30일까지 두달 간 운봉 가야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월산리 출토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야의 문화적 특질을 살펴보는 흥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신록이 우거지는 아름다운 계절 봄을 맞아 가족과 연인 등 함께 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를 방문하며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기를 바란다.

한편, 향토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제의 특별전을 개최하여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도립국악원, '매창, 꽃으로 피다' 공연

12~13일 무료 관람

여류시인 매창 이향금의 곡진한 사랑이 야기가 매화꽃 진자리에 피어난다. 전라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매창, 꽃으로 피다'가 12~13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은 매창의 사랑과 이별을 총7장으로 구성된 서사무용극으로 시·음악·춤으로 표현된다. 무용단의 수려한 몸짓으로 방년 매창의 삶과 사랑을 선연하게 그려낸다.

조선시대 부인출신의 여류시인이자 명기인 매창은 유려한 글과 거문고에 능해 당대 최고의 인물들과 풍류를 나눈다. 한시에 뛰어났던 천민출신의 선비 춘은 유희경과 신분·나이를 초월한 애절한 사랑에 빠지지만 이별을 맞이한다.

그녀는 이별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키며 그와의 사랑을 추억한다.

공연 안무를 맡은 김수현 단장은 "정제되고 모던한 무대와 한복을 해체 분석한 조형미적 의상, 형식미를 통한 우리 춤으로 매창의 시혼을 달래고 연인과의 짧은 만남 긴 이별을 통해 기다림으로 잠깐의 애달픈 마음을 표현했다"며 "국악관현악을 기본으로 거문고와 생황의 조화로운 선율곡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매창, 꽃으로 피다' 포스터.

또한 우재현 연출가는 "불꽃같은 매창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텍스트를 배치, 영상과 조명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렬한 색채로 매창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전년 공연과 다르게 시각적 요소를 부각시켜 한편의 시를 대하듯 새롭고 신선한 형식의 공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 공연의 관람은 무료다. /정해은 기자

'아트토이컬처 2016' 성황리 마쳐

장난감인듯, 장난감 아닌 '아트토이컬처'가 해마다 성장해왔다.

가나아트센터와 아트벤처스는 지난 4~8일 코엑스에서 연 제 3회 '아트토이컬처 2016'에 누적 방문객 16만여명이 관람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9일 밝혔다.

아트토이 1세대 작가부터 신진 작가, 해외 작가 등 120여팀이 다양한 아트토이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과 교감을 나눴다. 행사 기간 내내 라이브 페인팅, 토이 만들기, 세미나, 사인회가 곳곳에서 펼쳐져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클레인, 핸즈인팩토리, 네온세븐, 슈퍼픽션 등의 부스는 전시회 기간 내내 국내외 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북새통을 이뤘다. 인디디자이너그룹 스티키몬스터랩은 모든 신제품이 품절시대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시회에 참여한 일본 나카자와 쇼코 작가는 "아트토이컬처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고, 많은 에너지를 얻고 돌아간다"며 "한국 아트토이 작가들의 뛰어난 실력과 관람객들의 열정과 관심에 놀랐다. 한국 아트토이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최미정 작가, 전주대에 기독교 성화 기증

최미정 작가가 기독교 대학인 전주대학교에 기독교 성화를 기증했다.

9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날 대학 스타센터 도서관에서 최미정 작가의 작품 '엠마오로 가는 길(Via ad Emmaum)'의 제막식이 열렸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7개 장면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세로 2m, 가로 7m의 큰 화폭에 담아낸 작품이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두 목격자의 이야기를 피카레스크(picaresque)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최미정 작가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비슷해 우리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주제이다"고 말했다. /박용주 기자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5월 10일>

<p>▷쥐띠 46년생: 금전적 이득이 있겠다. 60년생: 다른 사람의 덕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72년생: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된다. 84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혼자 묵묵히 진행하라.</p>	<p>▷소띠 4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6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 말과 행동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3년생: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을 진행하더라도 낭패를 볼 수 있다.</p>	<p>▷호랑이띠 50년생: 손이랫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다. 74년생: 뒷사람의 모진 말로 인해 마음 상할 수 있는 운이나 결과는 좋다. 86년생: 집중이 잘 안되고 근심이 생기는 운이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운이다.</p>	<p>▷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 편인해진다. 63년생: 베푸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는 운이니 공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이니 화를 버리지 말 것.</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막힘이 따르는 운이다. 64년생: 좋은 일해주고 원망 듣는 운이다. 76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답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88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p>	<p>▷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뜻을 일과 인장은 일이 같이 있겠다.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p>	<p>▷말띠 54년생: 문서를 잡는 것은 좋으나 매매운은 악하니 감안하라. 66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성의 도움을 받아라.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양띠 55년생: 길잡이 비취니 문서 주고받는 일도 좋다. 67년생: 혼자 판단해서 혼자 행동하는 것은 금물. 옳은 판단인지 검토하고 움직여라.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버리지 않는다면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처음에는 힘들고 고민이 많이 생기는 운이다. 68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운이다. 80년생: 인덕이 있는 운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해결하라. 92년생: 동기간과의 화합에도 좋으며 협동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이다.</p>	<p>▷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81년생: 포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 자신의 중심을 잃거나 잡느라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p>	<p>▷개띠 46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은 운이다. 58년생: 여성과 반목하면 구설수가 따른다. 70년생: 손이랫사람과의 시비가가 생기는 운이니 말을 줄이고 상황을 지켜보라. 82년생: 기혼자는 부부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p>